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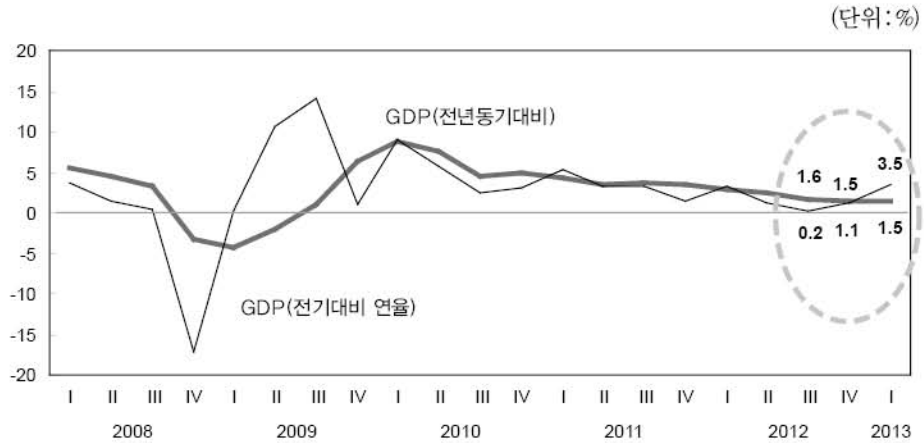
## 거시경제 동향\*

김태봉(한국개발연구원 거시·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)

-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로부터 소폭 개선되었으나, 전반적인 개선 추세는 완만한 모습을 보임
- 우리 경제는 작년에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내외 수요 약화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나, 금년 들어 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
  -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.5%를 기록하였으나, 계절조정 전기대비 연율로는 비교적 높은 3.5%의 성장률을 기록
  - 국내총생산(전기대비 연율):(2012. 1/4분기) 3.3% → (2/4분기) 1.2% → (3/4분기) 0.2% → (4/4분기) 1.1% → (2013. 1/4분기) 3.5%
-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나,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등 생산 측면에서의 경기개선 추세도 비교적 완만한 모습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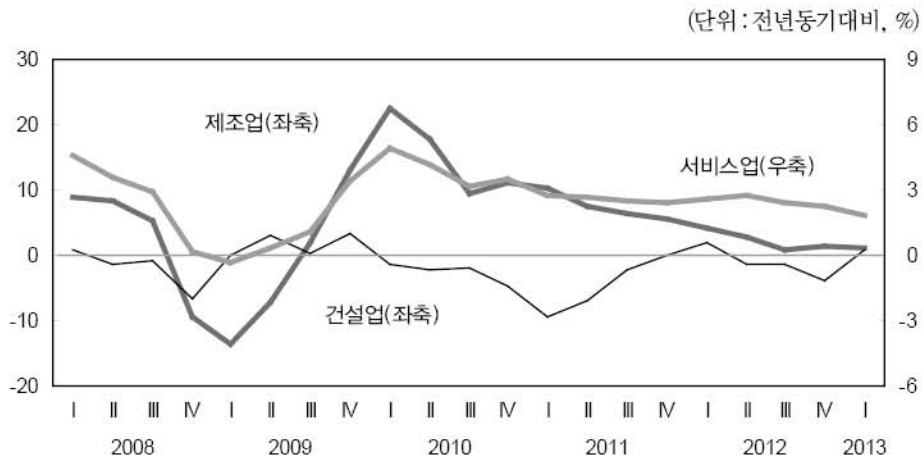
\* 이 글은 「KDI년 상반기 경제전망」을 발췌 요약한 것임.

[그림 1] 국내총생산 성장률



자료: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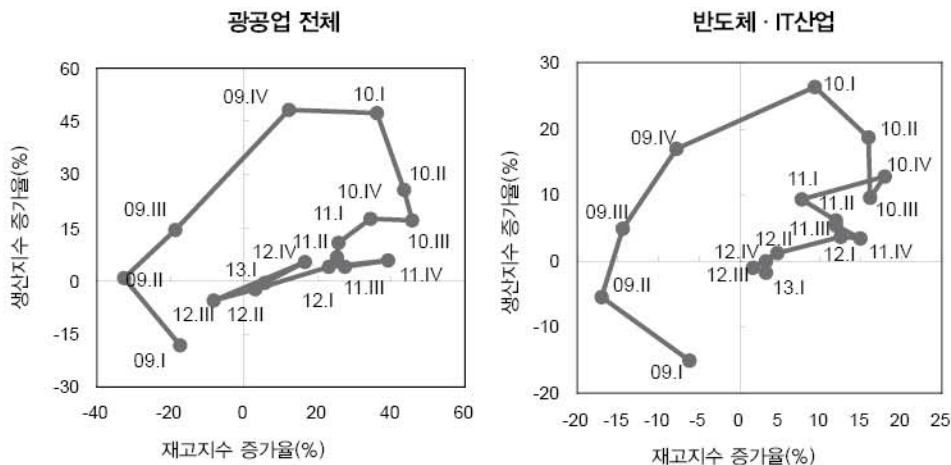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주요 부문별 성장률



자료: 한국은행.

- ◎ 생산·재고 순환은 생산지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지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

[그림 3] 생산·재고 순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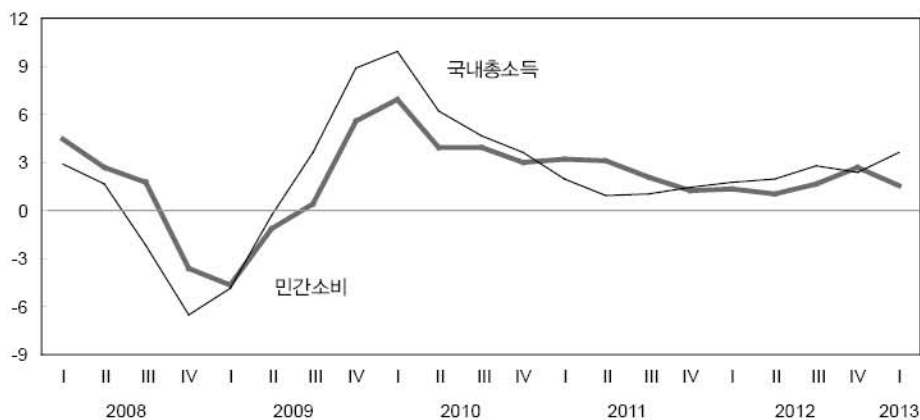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.

■ 지출별로는 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

◎ 민간소비는 최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, 실질구매력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
[그림 4] 민간소비 및 국내총소득 증가율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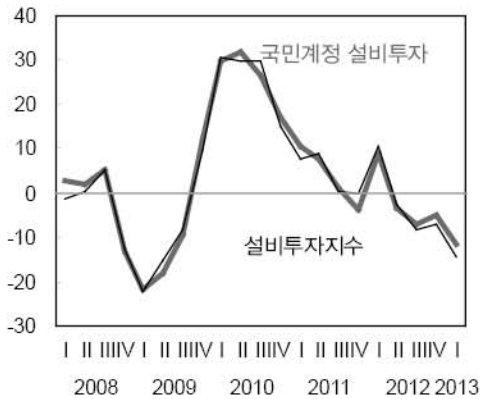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.

- ◎ 투자는 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
  -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/4분기에 11.5% 감소하였으나, 계절조정 전 기대비로는 증가로 전환되며 3.0%의 증가율을 기록
  - 건설투자는 1/4분기에 건축 및 토목 모두 증가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감소세로부터 증가로 전환되었으며, 전기대비로도 2.5%의 증가율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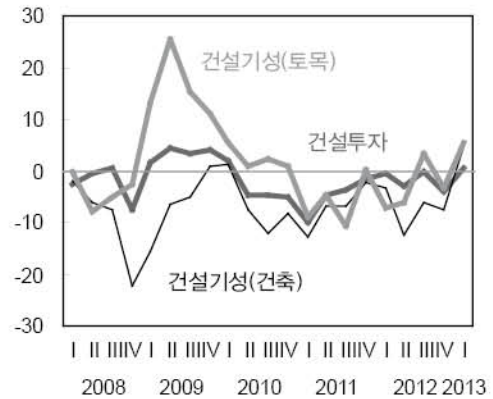
[그림 5] 설비투자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

[그림 6] 건설투자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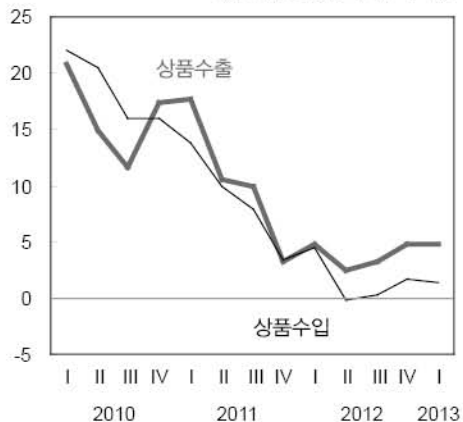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; 한국은행.

- ◎ 상품수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완만한 개선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품수입 증가율은 다소 하락
  - 지역별 상품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, EU 수출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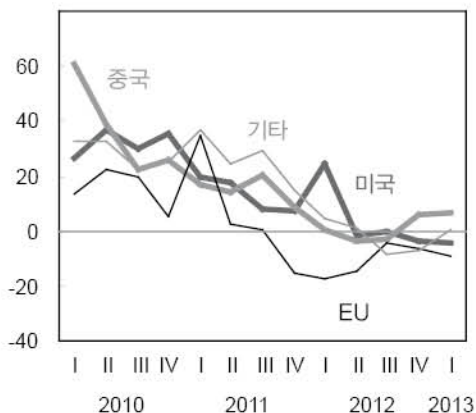
[그림 7] 상품수출입(물량 기준)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

[그림 8] 지역별 수출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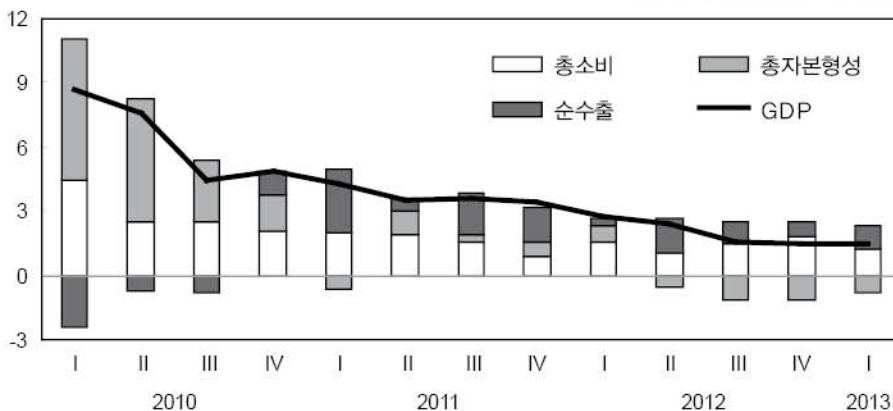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; 한국은행.

- 금년 1/4분기 중 지출별 성장기여도는 순수출이 1.1%p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소폭 확대된 반면,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.4%p로 하락

[그림 9] 지출별 성장기여도

(단위: 전년동기대비 %p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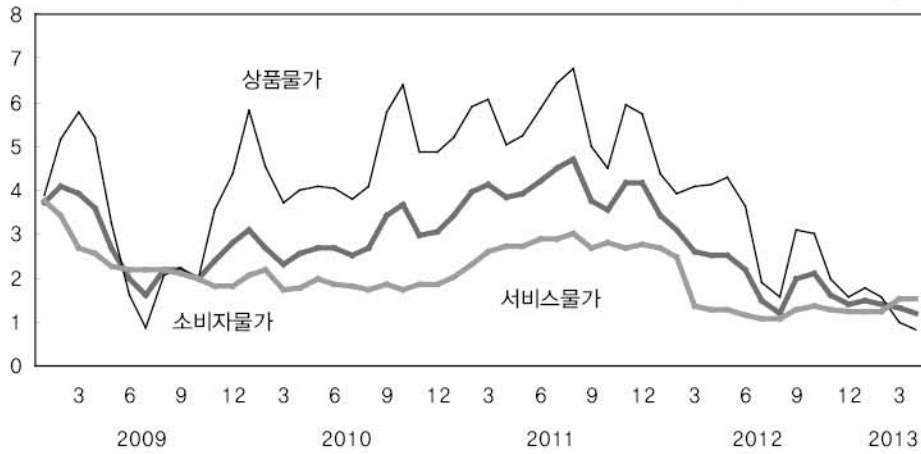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.

- 소비자물가는 상품물가의 상승세 둔화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 둔화
- 소비자물가는 1/4분기 중 서비스물가가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고, 수입물가 하락으로 상품물가 상승세도 둔화되면서 1.4%의 상승률을 기록

[그림 10] 물가상승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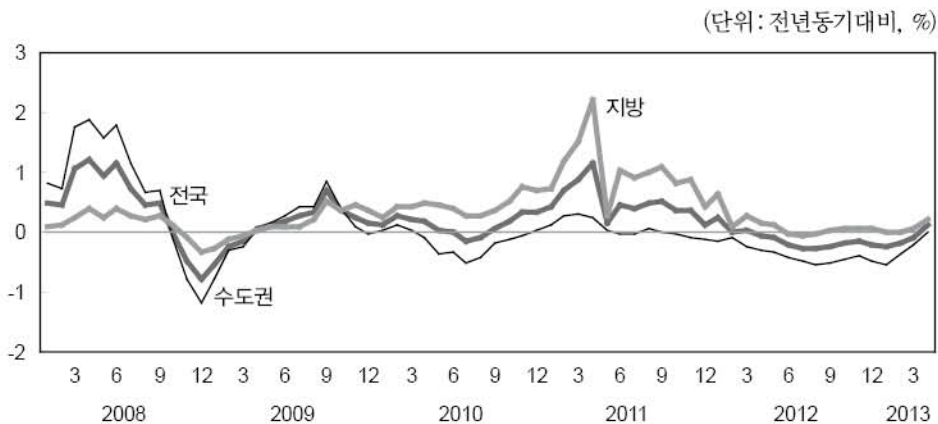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

자료: 통계청.

- 한편, 주택 매매가격은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하락세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지방은 소폭 상승

[그림 11] 주택가격 상승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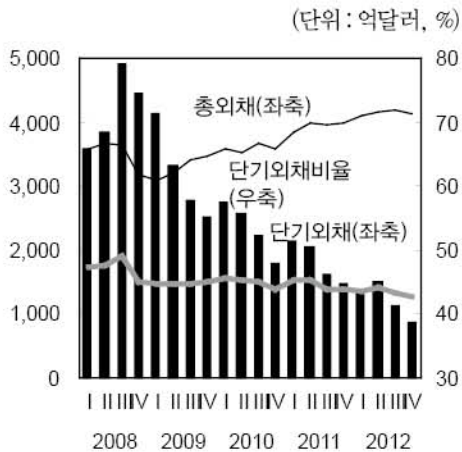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감정원.

- 금융시장은 원/엔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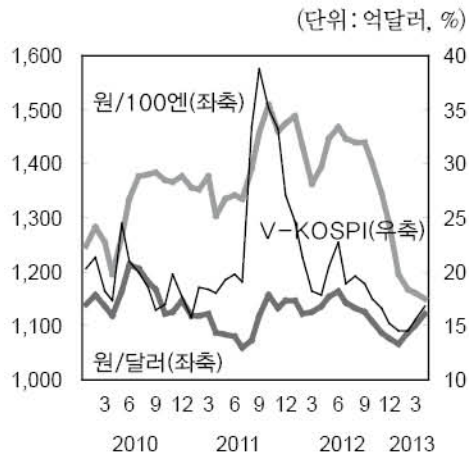
◎ 원/엔 환율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으나,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가 하락하는 등 외환건전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

[그림 12] 외환건전성



주: 단기외채비율=단기외채/외환보유액\*100.  
자료: 한국은행; 한국거래소.

[그림 13] 환율과 V-KOSP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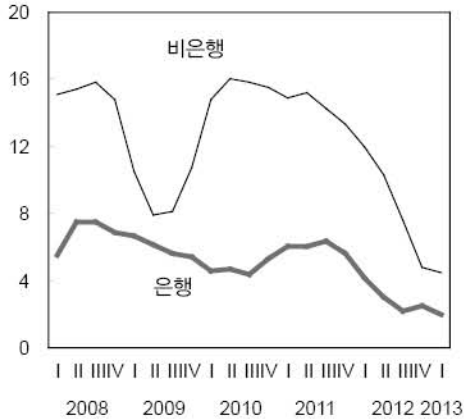




- ◎ 가계부채는 연체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,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

[그림 14] 가계대출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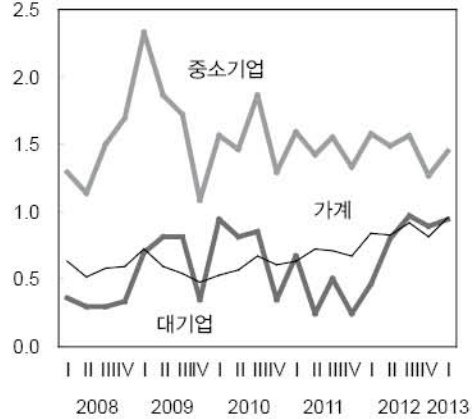


주: 가계대출의 2013년 1/4분기는 2월 기준임.

자료: 한국은행.

[그림 15] 은행대출 연체율

(단위: %)



-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,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
- ◎ 미국의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일본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
  - 미국의 경우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으나, 정부 예산 자동삭감 시행 및 감세 종료 등의 영향으로 경기개선 추세가 약화될 전망
  -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.5%로 하향조정
  - 일본은 양적완화조치 및 대규모 추경 편성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는 등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



〈표 1〉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

(단위:%)

	2011	2012	2013	2014
세계 <sup>1)</sup>	4.0	3.2	3.3	4.0
선진국	1.6	1.2	1.2	2.2
미국	1.8	2.2	1.9	3.0
유로존	1.4	-0.6	-0.3	1.1
일본	-0.6	2.0	1.6	1.4
개도국	6.4	5.1	5.3	5.7
아시아 <sup>2)</sup>	8.1	6.6	7.1	7.3
중국	9.3	7.8	8.0	8.2
대만	4.1	1.3	3.0	3.9
인도	7.7	4.0	5.7	6.2
브라질	2.7	0.9	3.0	4.0
러시아	4.3	3.4	3.4	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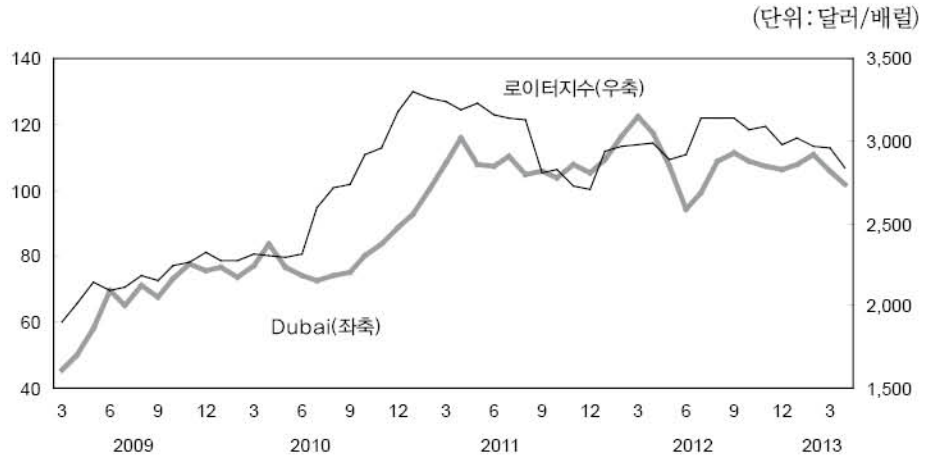
주: 1) IMF의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임.

2) 아시아지역에서 IMF는 한국, 일본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를 제외(선진국에 포함).

자료: IMF, *World Economic Outlook*, April 2013.

- ◎ 중국 등 신흥시장국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소비와 수출 등 실물 경기지표의 개선 추세가 부분적으로 둔화
- ◎ IMF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반영하여 2013년 성장률을 0.2%p 하향조정한 3.3%로 전망하였으며, 2014년 성장률은 4.0%로 예상
  - IMF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2013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- 국제 원자재가격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
- ◎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로 원유수요가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하락할 전망

[그림 16] 국제유가와 상품가격지수



주: 가계대출의 2013년 1/4분기는 2월 기준임.  
 자료: 한국은행.